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6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평화와 번영의 바다를 향한 해양평화공원



인터뷰 :

인천겨레하나 강광 대표와의 만남



I/D/I/소/식



2010 아시아공무원 초청 연수

우리연구원은 지난 6월 7일 2층 대회의실에서 Ms. Villegas,...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2010 과학기술 정책(TAP) 연수과정 개최(6.13~7.2...

Zoom INcheon



긴장감과 비밀을 간직한 섬, 백령도
최근 천안함 사태로 어느 때보다 백령도에 관심이 모아졌다. 백령도는 북...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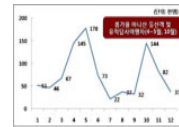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 경제권, 외레순지역 (덴마크와 스웨덴 접경)
외레순(영어: Øresund, 덴마크어: Øresund, 스웨덴어: U...

IDI연구



남북긴장확대로 인한 인천지역의 영향 및 대응방향
-천안함 사태 이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남북...

인천지표



남북접경지역 관광이용 현황
-남북접경지역의 2008년 10개 시군에 대한 총 관광객 수는 19,4...

평화와 번영의 바다를 향한 해양평화공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변화연구실장 남정호

서해의 남북한 접경 연안해역은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상태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1999년, 2002년, 2009년 세 차례의 남북한 군사 충돌은 이 지역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는 서해에서 남북한 군사 긴장상태를 최고조 상태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육상의 교류·협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인간에게는 남북관계 개선의 사각지대이자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은 긴장 지역이지만 생태계에게는 한없이 평화로운 공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0여 개체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저어새는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서식하고 있다. 노랑부리 백로, 물범 등 보호생물종과 이들의 서식처인 갯벌, 사구 생태계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어울려 있다. 최근에 중국어선의 남획과 오염물질 유입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꽃게, 까나리와 같은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해양 경관자원도 빼놓을 수 없는 이 지역의 자산이다. 특히 개성공단~김포시~인천광역시로 연결되는 경제벨트는 차세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보호가치 높은 생물자원 보호,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관광산업 활성화, 항만 및 산업단지 협력, 리스크 관리 비용 완화와 같은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서해연안 접경 지역에 '해양평화공원(Marine Peace Park)'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이 지역의 가치와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제기되었다. 이미 국제적으로 접경지역의 국가 간 협력관리가 하나의 제도적 틀로 정착되어 생물보호와 자원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조성한 홍해 해양평화공원(Red Sea MPP)은 홍해 접경해역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고 양국 간 긴장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은 육상의 평화공원, 홍해 평화공원이나 접경해역 공동보호구역의 틀과 유사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 지역의 자원 이용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접경연안의 생물종다양성, 수산자원, 문화자원을 보호하고(Protection),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Peace), 경제 번영(Prosperity)의 토대를 구축할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해양평화공원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남한과 북한, 특히 인천-경기만 지역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분리하는 '실사구시적 접근, 실용적 접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더라도 공간획정에 집착할 경우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접경해역의 일부를 상징적 거점 공간으로 관리하는 '복합형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평화공원의 기본목표를 생태계 보호, 정치군사 긴장 완화, 경제번영으로 설정하고 세 개의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분야 협력으로 호를 가능성이 있는 바,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과 서식지를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번영 목표는 남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기능하겠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및 정주여건 개선에 비중을 두어, 대규모 국책사업과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서해해양평화공원 구상에 한강하구 남북 공동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포함시켜 포괄적, 통합적 접근에 기초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남한과 북한이 당사자로서 직접 교류, 협력하는 축을 중심축으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제1 보조축, 남한 내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 조정 메커니즘을 제2 보조축으로 설정하여 다층적 협력에 기초한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바다는 공동체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공간’이라고 설파했던 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인 Klaus Toefer의 정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서해연안 접경지역 해양평화공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획정한 인위적 경계를 초월하여 이 지역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생태계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경제적 평화, 생태적 평화, 정치·군사적 평화가 펼쳐질 서해를 꿈꿔 본다.

서해의 남북한 접경 연안해역은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상태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1999년, 2002년, 2009년 세 차례의 남북한 군사 충돌은 이 지역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3월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는 서해에서 남북한 군사 긴장상태를 최고조 상태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육상의 교류·협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북지원에서 서해평화운동으로

대북지원에서 서해평화운동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47호에서는 인도적인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겨레하나'의 강광 대표를 만나 인천겨레하나의 주요목표, 사업실적과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고, 남북평화에 있어서 인천의 가치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시민평화운동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Q. 인천겨레하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목표 및 그 동안 사업 실적, 향후 주요 사업 방향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지요.

올해로 인천겨레하나가 출범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겨레하나는 2004년 북녘어린이영양공공장 건립, 2005년 평양유적지 참관사업, 2006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북측 선수단 및 응원단 초청사업, 2007년 평양겨레하나 치과병원 건립, 2008년 평양창광거리현대화 사업 등 인도적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해왔습니다. 그동안 2004년 6·15공동선언 4돌 '우리민족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치루어진 첫 번째 남북민간통일행사라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후 지역별 민간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현재는 인도적 대북사업과 민간교류협력사업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평양겨레하나치과병원에 의약품도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평화운동을 통해 '인천을 평화와 통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인천에 있어서는 평화체제 및 평화운동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인천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도 남북협력과 남북평화에 있어 한국의 다른 지역과는 남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발전에 있어서도 평화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지만, 잘려진 한반도의 가장 서쪽이면서 동시에 북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남북평화, 동북아 평화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완전히 변방에 위치한 셈입니다. 따라서 인천의 발전 목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 비핵화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한 옹진군의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어민들의 생존문제인 꽃게 등 어업문제, 한강하구의 남북간 공동이용, 강화도와 해주, 개성의 다리 연결을 통한 경제특별구역 건설 등 인천시민들의 생존 및 지역발전과 관련한 이슈가 많이 널려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서해에서 남북간 평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금강산 관광이 정지되고 최근에는 개성공단 사업마저도 위태로운 사정으로 육상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는 긴장이 더 깊어갈 모양입니다. 서해에서는 1999년, 2002년 두차례의 교전이 있었고, 이번에는 천안함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긴장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북방한계선(NLL)이 남북이 합의한 선이 아니라, 남과 북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천겨레하나 강광 대표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와 같은 완충영역도 없습니다. 이는 서해가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며, 서해평화문제가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은 특히 서해문제를 군사와 경제, 평화와 안보를 적절히 접합시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선포함으로써 NLL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법이있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양측 고위 당국의 결정없이 서해평화가 이뤄지기는 곤란하겠지만, 6자회담, 북미 양자회담에서 고위층에서 비핵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지역적으로는 서해평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실천활동을 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당분간 직접적인 남북협력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래하나가 당분간은 남북협력,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시민평화운동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군요.

물론 대북 지원사업, 남북협력 사업도 시민들과 함께 해왔지만 평화운동이야말로 인천시민들과 함께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평화운동을 확장하여 광의의 평화활동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국제평화의 전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서해평화 외에도 국제평화, 광의의 평화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남북간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평화의 개념은 비핵화·반전만이 담긴 내용이 아닙니다. 유엔산하 평화사절도시연합의 회원도시 가입 조건을 보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도시 활동에는 반전, 비핵 활동 등 평화 촉진활동(Promotion of peace)외에도 다문화 환경 및 연대 촉진, 인권활동 촉진, 교육과 어린이 보호 활동 장려, 환경보호 장려, 문화교류 장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선진 국제사회의 도시에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서해문제도 남북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국과도 공유하고 있는 서해에는 아직 독도문제처럼 영토분쟁화 되지는 않았지만 해저자원의 영유권을 결정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경계 획정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라도 남단의 이어도를 두고 중국과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역사, 영토, 시민의식의 갈등을 일본과의 관계처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환황해경제권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지혜롭게 풀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서해의 해양오염문제도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문제입니다. 바다 건너 중국 시민들과의 환경협력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필요조건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Q. 광의의 평화를 실행하기에는 시민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자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군사적 의미만이 아닌 광의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지자체가 힘을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 '인천을 평화와 통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그 힘을 기반으로 인천시가 국제평화사절도시연합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서로 협력하여 인천이 남북교류협력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서해 평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천의 발전은 한반도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환황해 경제권의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담 : 강승호(동북아·물류연구실 연구위원)
■ 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뜨리에' 47호에서는 인도적인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거래하나'의 강광 대표를 만나 인천거래하나의 주표목표, 사업 실적과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고, 남북평화에 있어서 인천의 가치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시민평화운동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6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2010 아시아공무원 초청 연수

2010 아시아공무원 초청 연수



우리연구원(원장 이창구)은 지난 6월 7일 2층 대회의실에서 Ms. Villegas, Maria Teresita "Baby" (필리핀 마닐라시 국제협력부 부장) 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아시아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일부를 진행했다. 먼저 이창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경제권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특별 선발된 엘리트 공무원들을 초청, 연수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연수가 의미있고 유익한 성과를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 참석자들은 인천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인천발전연구원 및 인천광역시의 현황 및 도시계획현황 등을 브리핑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청사시찰 및 사진촬영을 했다. 한편, 이밖에도 연수 참석자들은 분야별 기관 및 강화역사체험을 하고, 연수보고서 작성, 좌담회 및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우리연구원은 지난 6월 7일 2층 대회의실에서 Ms. Villegas, Maria Teresita "Baby" (필리핀 마닐라시 국제협력부 부장) 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아시아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일부를 진행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6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행사정보

HOME | CONTACT US | WWW.IDIARE.KR

Webzine Vol.

47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2010 과학기술정책(TAP) 연수과정 개최(6.13~7.2):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포럼] 카자흐스탄 제3회 ASTANA Economic Forum(6.28~7.2):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행사] 제26차 물류기술 콜로키움 2010 개최(6.30):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공적개발원조 국제심포지엄」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개발 정책과 실천 개최(7.1):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포럼] 「미래사회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방안 연구」도시정책분과포럼 개최(7.1):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지역협력세미나」개최(7.2-3):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프랑스 액상프로방스 국제 컨퍼런스(7.2~7.4):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행사] 2010 과학기술정책(TAP) 연수과정 개최(6.13~7.2):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포럼] 카자흐스탄 제3회 ASTANA Economic Forum(6.28~7.2):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행사] 제26차 물류기술 콜로키움 2010 개최(6.30):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공적개발원조 국제심포지엄」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개발 정책과 실천 개최(7.1):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미래사회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방안 연구」도시정책분과포럼 개최(7.1):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지역협력세미나」개최(7.2-3):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프랑스 액상프로방스 국제 컨퍼런스(7.2~7.4):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긴장감과 비밀을 간직한 섬 백령도



최근 천안함 사태로 어느 때보다 백령도에 관심이 모아졌다. 백령도는 북녘 땅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 섬 2km 앞이 38선이며, 황해도 장산곶이 지척에 있다. 남북한의 긴장감이 늘 감지되는 곳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덕분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섬이라 할 수 있겠다. 서해 국도 끝섬 백령도의 본래 이름은 '국도(鵠島)'다. 섬 모양이 따오기가 흰 날개를 펼치고 나는 모습을 닮았다 해 붙은 이름이다. 넓이가 여의도의 6배,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 백령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루 3회 출항하는 패속선을 타고 4시간가량을 달려 용기포항에 도착하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소박한 자연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에 된다.



백령도가 자랑하는 독특한 풍광은 몇가지가 있다. 그 중 최고로 치는 곳이 '두문진'이다. 고려시대 충신 이대기가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표현했을 정도로 오랜 세월 파도와 비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삐죽삐죽한 암석들은 환상 그 자체다. 사자, 코끼리, 촛대, 신선, 형제, 새, 구멍 등 투구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에메랄드빛 바다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포구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을 타면 두문진의 빼어난 경관을 두루 구경할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근처 바위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을 만날 수 있다.

두문진에 이은 또 하나의 절경은 사곶해안과 공돌해안이다. 용기포에서 바다를 끼고 조금 올라가면 사곶해수욕장(천연기념물 제391호)이 펼쳐진다. 3km쯤 이어진 평평한 모래밭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함께 세계에서 단 2곳뿐인 천연비행장으로 유명하다. 너비 300미터의 규사토 백사장은 자동차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으며 규사토의 입자는 모래보다도 고와서 맨발로 걷는 감촉이 아주 좋다. 사곶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웅만한 돌들이 2km 가량 깔린 공돌해안(천연기념물 제392호)이 펼쳐져 있다. 공돌은 규암이

수천만 년 파도에 깎이고 닳아 만들어진 것이다. 공돌 해변은 걷는 재미도 그만이지만 파도가 밀려와 공돌을 쓰다듬는 해조음은 무슨 악기소리처럼 잔잔하면서도 경쾌하다. 공돌이 깔린 바닷물은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지만 수심이 깊어 수영은 할 수 없다.

천혜절경을 간직한 백령도가 더 신비로운 이유는 역사 속에 있지 않을까. 전래동화 심청전에서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던진 인당수가 바로 백령도 앞바다이다. 백령도 북쪽에는 심청이를 기리기 위한 심청각이 있고, 남쪽에는 심청이가 환생했다는 연봉바위가 있다.

이렇듯 소박한 여유로움과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감동을 느껴보고 싶다면 백령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쳤다면 유구한 역사가 있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백령도로 발길을 돌려 마음의 위안과 여유를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 경제권 외레순 지역 (덴마크와 스웨덴 접경)

■ 지리적 현황

외레순(영어: Oresund, 덴마크어: Øresund, 스웨덴어: Öresund)은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해협 이름으로, 외레순 해협은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많은 해협 중의 하나이다. 외레순 지역은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과 질랜드(Zealand)지역, 스웨덴의 스카네(Skane)지역으로 구성된 초광역 경제권지역을 말한다.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외레순지역은 코펜하겐과 말뫼라는 두 지역의 발전의 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2000년 7월 1일에 개통한 외레순 대교의 역할이 컸다.

<그림1> 외레순 지역



외레순 대교의 건설은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50%의 비용분담으로 총 130억 스웨덴 크로나(약 2조원)가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코펜하겐과 말뫼간의 통행량이 많아 초기 예상치보다 높아 비용회수시점이 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집값이 저렴한 말뫼와 취업기회가 많은 코펜하겐을 오가는 근로자의 차량 통행량과 국제선 기차 이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사회경제적 현황

외레순 지역 12개 대학은 연합대학인 외레순 대학을 창설하고, IT·식품·제약·환경·물류분야 산학단지(cluster)인 외레순 사이언스 지역(Oresund Science Region)을 조성하였다. 외레순 대학은 코펜하겐대학, 룬트대학, 덴마크 공대, 말뫼 대학, 스웨덴 농업과학대, 코펜하겐IT대학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 대학연합체이다. 외레순대학 소속 학생들은 상호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하나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2010년 3월부터 이들은 Oresund Org라는 새로운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웹사이트 www.oresund.org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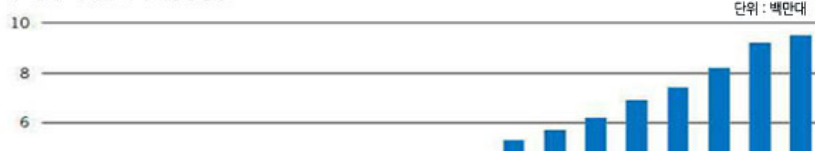
<그림2> 외레순 대교 전경 및 열차 운행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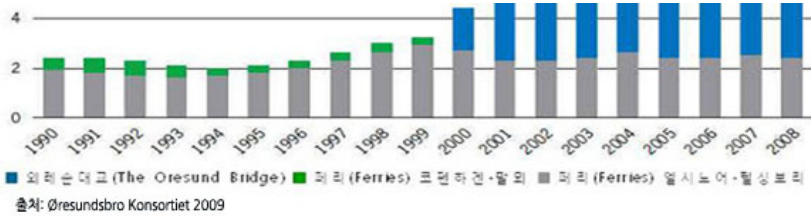
출처: Øresundsbron

이 같은 사회 경제적 통합으로 외레순 지역의 차량통행량은 페리(Ferries)를 주로 이용하던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2배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4배 이상 급증하였다. 그리고 외레순 대교를 이용하여 통학하거나 통근하는 인원이 2008년 기준으로 2만명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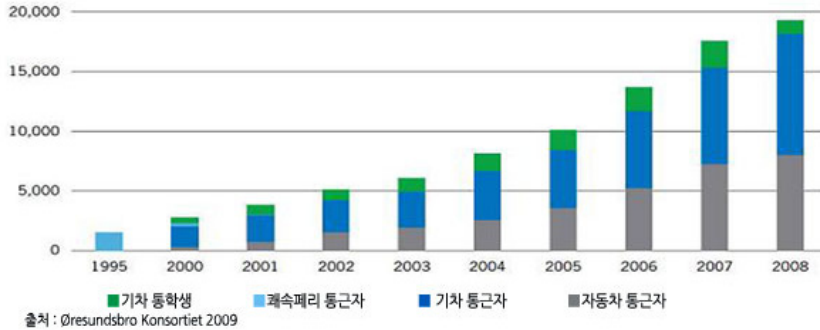
<그림3> 외레순 지역 차량통행량



단위: 백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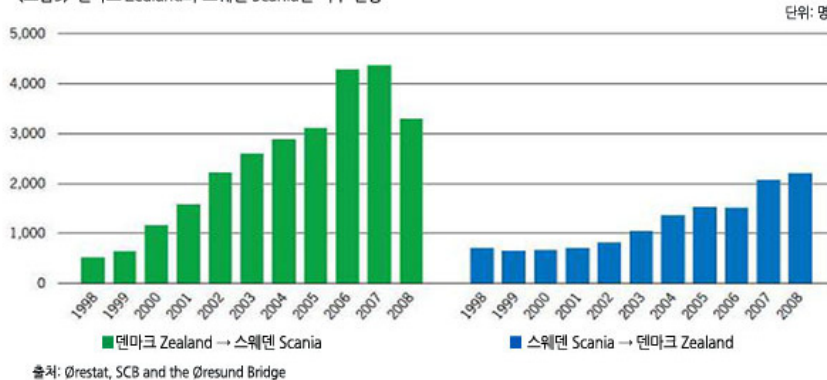


〈그림4〉 외레순대교 통근인원 현황



사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제적 통합에는 상호 협력적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은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좀 더 저렴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스웨덴은 실업률의 증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레순 대교의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건설 후 덴마크와 스웨덴 간의 상호 이주가 활발해진 것이다.

〈그림5〉 덴마크 Zealand와 스웨덴 Scania간 이주 현황



이처럼 외레순 대교 개통 이후 코펜하겐과 말뚝는 빠르게 하나의 시장, 단일 생활권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인프라와 지역계획, 노동시장과 인력개발, 네트워크와 지식확산, 문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 내면서 접경지역 초광역 모델의 성공사례가 된 것이다. 외레순 지역의 사례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례를 통해 중국, 북한과 접해 있는 인천의 서해 접경개발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참고〉

김태연·이철우·이종호(2009), 외레순 식품클러스터의 산·학·관 협력체계와 지원기간의 역할연구, 식품유통연구 제26권 제4호, pp.78-101
 Øresundsbro Konsortiet, The Øresund Bridge and Its Region, Øresundsbro Konsortiet, 2009.
 조선일보 인터넷뉴스, '초광역 경제권 현장을 가다', 2010.02.19
<http://uk.oresundsbron.com/page/34>
<http://oresund.org>

외레순(영어: Oresund, 덴마크어: Øresund, 스웨덴어: Öresund)은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해협의 이름으로, 외레순 해협은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많은 해협 중의 하나이다. 외레순 지역은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과 질랜드(Zeland)지역, 스웨덴의 스카네(Skane)지역으로 구성된 초광역 경제권 지역을 말한다.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외레순지역은 코펜하겐과 말뚝라는 두 지역의 발전의 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2000년 7월 1일에 개통한 외레순 대교의 역할이 컸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남호 보기

2010년 6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남북긴장확대로 인한 인천지역의 영향 및 대응방향

I. 최근 남북긴장으로의 경과

○ 천안함 사태 이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남북교역중단 발표시 개성공단은 제외되었으나, 북한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육로통행차단 발표 등 개성공단마저 폐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발생. 항만들은 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다각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가능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3.26 천안함 사태 발발

5.20 천안함 침몰 원인: 북한 소행으로 발표

5.24 대국민담화: 남측의 천안함 관련 대응조치

- 남북교역 전면중단, 대북신규투자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상항로 통행금지, 방북 전면불허/ 대북지원사업 보류

5.2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관계 전면단절 선언

-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중지/ 해운당국간 통신 차단

5.26 북한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7대조치)

II. 남북교역 중단의 경제적 영향

○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임. 금번 교역중단 등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도 한국은 북측에 비해 손실이 크지 않으며, 북한에게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천안함 사태와 이에 따른 남북대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아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

1) 남북 교역 부문

□ 남북 교역액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북간의 전체교역액은 16.7억 달러이며, 그 중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이 점하는 부분은 전체의 43.2%인 7.2억 달러임.

〈표 1〉 남북경제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2009)

구 분	전체 대외 무역액 (\$)	남 북 교역액 (\$)		비중 (%)	
		개성공단제외	개성공단포함	개성공단제외	개성공단포함
북한	50.9억	7.2억	16.7억	14.5	32.8
남한	6,866.2억			0.1	0.24

□ 교역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극히 미미하지만 상징성 문제

○ 교역중단이 미칠 손실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북한의 남북교역비중은 개성공단 제외 시 14.5%, 개성공단 포함 시 33.0%로 상당한 비중을 점유함. 남한의 경우, 남북교역 비중은 각각 0.1%, 0.24%로 매우 작음

○ 교역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손실은 남한을 대체할 교역상대를 찾기 쉽지 않으며, 이는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2) 교역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 손실

○ 북한의 경제적 손실은 기관별로 2.5억 ~ 3.7억 달러로 추정

□ 통일연구원

○ 북한 외화수입 손실은 총 2.5억 달러로 추정됨. 일반교역 손실은 2.1억 달러임

- 남북교역 순반입액 2.34억달러(반입 2.45억 - 반출 0.1억)

- 만입부내비용(중간 및 하역비용, 선박운임, 중개료 등 만입액의 10% 정도) 제외시

○ 위탁가공교역 손실

- 북측의 위탁가공 소득은 우리측 반입 중 임가공료 수입이므로 0.32억 달러(=반입액 2.54억 × 12.5%)²

○ 선박운항금지(제주해협) 손실 0.1억 달러

- 제주해협금지 항로 우회시 비용상승분 연간 100만 달러³ + 남북교역품 운송수입 900만 달러에 이를 것임

□ 남북포럼(남북경협민간단체): 3.7억 달러(일자리 8만개)

□ 관세청: 북한의 손실은 연간 총 3억 달러로 예상

○ 농수산물, 모래 등 판매액 2.4억 달러, 위탁가공임 수입 0.5억 달러

3) 남한의 경제적 손실

○ 경제 및 대외교역규모에 비해 남북교역규모가 미미하여 직접적인 손실도 적고 국가리스크 등의 간접적인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직접적인 영향

○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 일부 중소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의 피해 예상

○ 북한수입의존이 큰 일부 품목(바지락, 고사리 등)의 단기적 물가상승 가능성

- 가리비, 새우, 마늘 등 중국산 대체수입이 증가할 것

□ 간접적인 영향

○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대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아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

- 5월25일 환율상승, 주식하락이 이뤄졌음. 주가와 원화값이 폭락(5.25)하여도 외국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1조 6000억원 규모 국채(동안채 포함)를 순매수

-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외국인들이 위험자산(주식)을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한국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님. 즉 글로벌 자금이 일시적으로 보수화한 것일 뿐 '셀(Sell) 코리아'는 아님.

○ 보이는 않는 남북긴장으로 인한 유무형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4) 경제적 영향 종합

○ 남북교역 중단에 대한 기존평가는 북한의 손실 부담이 크고, 남한 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손실에 대해 경제적 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직접적인 남한의 손실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있음. 국제경제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감안하면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됨

III. 인천지역에의 영향

1) 인천항 및 관련업체

○ 2008년 이후 남북교역은 연간 9억 이상 북한에서 반입되고 그에 상응한 반출이 발생됨. 2009년 기준 북한의 순반입(반입-반출)은 2억 달러에 이룸⁴

○ 인천항으로의 반출입 비중은 약 30%를 점유

<표 2> 인천항의 반출입

연도	전국						인천항 비중(%)					
	반출		반입		교역수지 (천\$)	교역총액 (천\$)	반출		반입		교역총 액	
	건수	금액(천\$)	건수	금액(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	16,962	825,473	16,546	554,127	271,346	1,379,600	31.3	24.7	80.2	99.4	37.6	
2007	26,700	1,028,589	25,026	766,351	262,238	1,794,940	27.0	36.7	56.3	82.5	42.3	
2008	36,157	883,409	30,966	937,373	-53,964	1,820,782	17.2	24.1	30.3	55.1	36.8	
2009	41,271	732,622	37,127	933,462	-200,841	1,666,084	15.1	19.5	20.0	33.2	29.0	

자료: 관세청

□ 남북 해상교역 현황

○ 남북한 해상교역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해마다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07년을 정점으로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아 감소되고 있음. 2007년은 총 물동량 251만톤, 선박 입출항 1만회를 돌파함

<표 3> 남북 선박왕래 현황 (편도기준)

(단위: 회, 만톤)

구분	01년	02	03	04	05	06	07	08	09.1~8	계
운항 횟수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1,539	41,422
물동량	64	109	105	111	680	1,631	2,511	1,506	127	6,844

자료: 국토해양부

□ 남북교역에서의 인천항의 특성

○ 인천항은 풍부한 시장의 수도권과 공항을 이용한 해외 시장연계라는 배후를 지닌 항으로써 북한 수도권(평양 남포 일대)과 교역, 혹은 중국을 통한 3국무역 등 다양한 경로 기회를 지닌 항만

- 남북협력에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업체에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줌
- 금강산, 개성공단 등 육로 통행이 있기 전인 남북경협 초기부터 인천항은 대북 물자지원위탁가공 물자반출, 위탁가공완성품의 반입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옴.
- 특히 참여정부시절에는 개성공단 외에도 위탁가공 방식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많은 업체들의 반입창구가 됨

□ 인천항이용 현황

○ 항행금지는 북측 손실뿐 아니라 남측 기업에게도 많은 기회손실을 줄 것으로 생각됨

- 개성공단사업이 소강상황에 빠진 후에도 남한 반입은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증가
- 육로 외에도 해운항행의 기여가 큰 것으로 생각
- 대북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8년 이후 인천항의 비중이 30%이하로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인천항을 이용한 반입비즈니스 모델이 부산항, 속초항 등으로 확대됨
- 최근 개성공단 교역 감소 상황에서 해운을 통한 남북교역 증단은 인천항, 부산항 그리고 이들 항만을 이용한 비즈니스업체에 타격

○ 전체 교역에서 육로 및 항공을 제외하고 항만물동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천항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4%를 기록

〈표 4〉 인천항의 연간물동량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항만물동량	716,086	931,204	1,147,251	867,049	653,558
인천항	409,026	519,036	759,994	669,746	483,523
인천항점유율	57.1%	55.7%	66.2%	77.2%	74.0%

□ 단기적으로는 교역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영향

○ 인천지역업체 영향

- 레미콘업체 : 인천은 연간 750~800만㎡ 레미콘 생산을 위해 30~40%의 북한산 모래에 의존
- 수산물 반입금지로 인한 관광지의 조개구이집 등 피해
- ※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9년 인천 수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60% 이상인 7만 톤을 담당, 반입액은 5천5백만 달러에 이름

〈표 5〉 북한산 수산물 반입 현황

구 분	건수	중량(톤)	금액(천달러)
2001	2,255	22,617	39,924
2002	2,326	29,972	48,305
2003	3,304	34,885	51,911
2004	4,237	40,812	48,671
2005	5,311	49,151	61,137
2006	5,756	51,400	78,972
2007	5,627	52,985	94,383
2008	6,386	59,110	106,265
2009	9,685	70,341	115,157
증가율	20.0%	15.2%	14.2%
인천지역	4,780	42,617	55,207
인천 점유율	49.4%	60.6%	47.9%

○ 인천지역업체는 GM대우를 비롯해 재영솔루텍, 한국단자공업, 대화연료펌프, 동양다이크스팅 등 모두 41개사업. 인천기업들의 대북교역량은 반출 6141만 달러, 반입 8328만 달러로 총 1억4469만 달러 규모

- 위탁임가공에 의존하는 인천의 30여 곳의 의류업체 등

○ 전국적인 피해업체

- 위탁임가공업체 500여 곳의 중소기업들이 피해 예상

2) 항공로 우회로 인한 비용 증가

○ 항공로의 경우는 남북교역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의 동해상의 북한비행정보구역(FR)을 우회하게 됨으로써 남북양측 모두 손실이 발생함. 북한은 B467 항로구간통과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북한영공통과료 : 8747기준 편당 685 유로(약 135만원)를 받고 있음. 남한은 연간 30억 원(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4천324편을 이용했고, 통과료로 31억4천700만원을 북한에 지불

- * 다른 나라 항공사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연간 50~60억 원 정도 수입 감소
- B467 구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회당 300~400만원이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일본 비행정보구역으로 우회하여 국적항공사들은 매년 70~9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출 예상됨. 시간상으로도 20분~1시간 정도 증가되어 비행시간에 따른 고객불만이 내재되어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국적항공사 고객을 외국항공사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음

3)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차질

○ 비무장지대(NMZ)가 남북경계지역 이외에 가칭 오지그루 포함하고 이는 이천으로 가는 철거지역 개발에

○ 개성경제특구/인근 구역방역이 끝난 후에도, 오히려 관광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의 공약 사항 추진 문제

- 인천과 서해안을 통하게 하는 경제대동맥을 건설

② 인천에서 개성 및 해주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인천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 개성경제특구와 해주경제특구로 연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강화~개풍~개성간, 강화~교동~해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IV. 향후 전망 및 인천시 대응방안

1) 향후 전망

○ 중장기적인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 전망에 관해서 극과 극의 엇갈리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 낙관론: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후 중국주도 북핵 6자회담으로 남북대화협력 돌파구의 가능성

○ 비관론: 북한의 공언대로 현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복원이 불가능할 것임. 단기적으로는 남북 모두는 안보를 내세워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적대적 정책을 당분간 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상황이 심화된다면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수순을 거칠 우려도 있음.

- 이러한 과정이 지속된다면 항로, 항공로를 지닌 인천의 교역거점입지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점차 상실할 것임. 항행금지, 항공로 피해, 지역개발 차질 등 앞의 사례는 모두 평화(체제)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예임. 올해까지의 남북협력 심화 및 확대과정에서 인천이 누려온 혜택이었음을 알 수 있음

2) 대응방향

○ 남북긴장 대치의 핵심이 서해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중기적으로는 아시안게임 개최지로서 인천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남북긴장완화 남북평화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인천이 직접적으로 평화(체제)를 기원하는 의미와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음. 남북긴장기간의 동안 타시도에 비해 인천이 입게될 불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인천에서의 남북간 물류는 동북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함. 남북한 물류는 장기적으로 북-중 국경지대와 연결, 대륙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국제도시로서 또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은 지역마케팅개념, 그리고 이를 넘어선 건전한 이념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서해평화문제'를 검토 필요함. 천안함 사건 직후 인천시가 백령도위령당 건립사업 등을 취한 것은 기존 지역마케팅개념에서 보면 안보, 역사교훈여행(Dark Tourism)⁵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관광개념을 넘어선 진정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인천은 개성과 연계에 중심을 두는 남북협력과 함께 서해해상의 평화조건 확보를 요청하는 방향의 서해평화문제(중국 동해연안과 남북서해상의 항로, 해양환경, 해양생태계보존 등의 문제와 아울러 안보를 거론할 수 있는)를 남-북-중 지방자치체간 협력문제로 부각시키고, 문제해결하기 위한 주체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평화도시 이미지 및 국제적 사업네트워크를 위해서는 'UN 평화사절 도시연합'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¹위탁가금 23.1%, 일반교역 15.3%

²임가공로 비중은 라이티의 경우는 반입액의 1%, 신사북 상의는 30%를 상회하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10~15%에 달함.

³거리 53마일, 시간 4시간 25분 12노트 항해기준.

⁴순반입은 북측의 외화 가치를 높임. 통상적인 국제교역이라면 반출은 우리의 외화 수입이지만 개성공단을 통한 육로 반출이 많아진 2005년부터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북한은 순교역을 통해 외화수입을 가져가는 상황은 아니었음.

⁵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핵폭탄 지점, 미국의 9/11 테러난 곳 등이 관광명소화한 것처럼, 재난 등으로 소실된 것을 보존하여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

-천안함 사태 이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남북교역중단 발표시 개성공단은 제외되었으나, 북한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육로통행차단 발표 등 개성공단 마저 폐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발생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임. 금번 교역중단 등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도 한국은 북측에 비해 손실이 크지 않으며, 북한에게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천안함 사태와 이에 이은 남북대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아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6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남북접경지역 관광이용 현황

■ 관광객 총량

- 남북접경지역의 2003년 10개 시군에 대한 총 관광객 수는 19,491천 명으로, 강원지역이 49.20%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지역은 45.64%,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5.16%로 나타났다
-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파주시(8,167천 명)이며, 다음으로 고성군(5,771천 명), 인제군(2,518천 명)의 순임. 강화군의 관광객 수는 915천 명 수준으로 철원군(909천 명)과 비슷하였으며, 도서지역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웅진군은 89천 명으로 나타남

〈표 1〉 남북접경지역의 시군별 관광객 수 현황(2008년)

(단위: 명)

구분	합계 (비율)	내국인	외국인
총계	19,490,559 (100%)	18,656,261 (100%)	834,298 (100%)
인천	웅진	89,587	-
	강화	915,511	-
	계	1,005,098 (5.16%)	-
경기	김포	392,791	3,399
	파주	8,167,338	765,726
	연천	335,678	-
	계	8,895,807 (45.64%)	769,125 (92.19%)
강원	철원	909,070	1,627
	화천	248,082	59
	양구	143,725	1,384
	인제	2,518,083	3,209
	고성	5,770,694	58,894
	계	9,589,654 (49.20%)	65,173 (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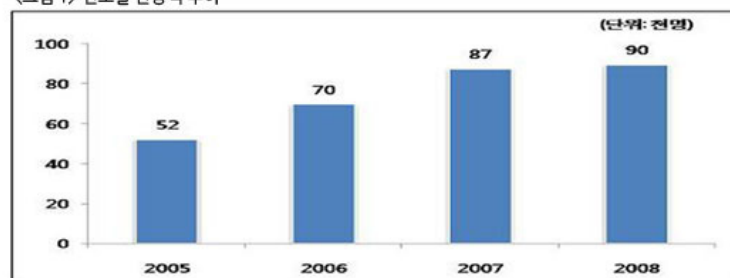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웅진군·강화군의 방문특성

〈웅진군〉

- 남북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하여 웅진군 전체의 방문객은 2008년도에 약 9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름 휴가철의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8월의 방문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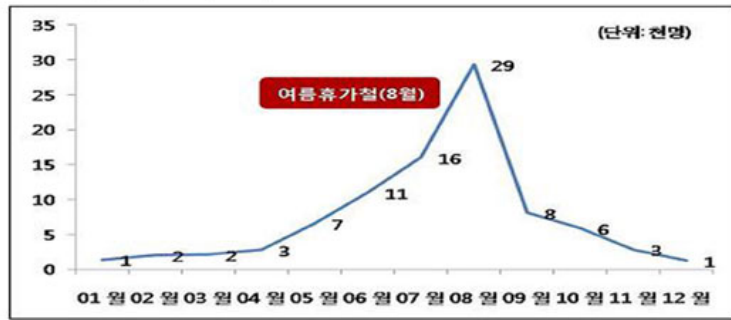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관광객 추이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문화관광연구원

주: 2005년 및 2006년 관광객 수 미집계로 추정치 사용함

〈그림 2〉 월별 관광객 추이(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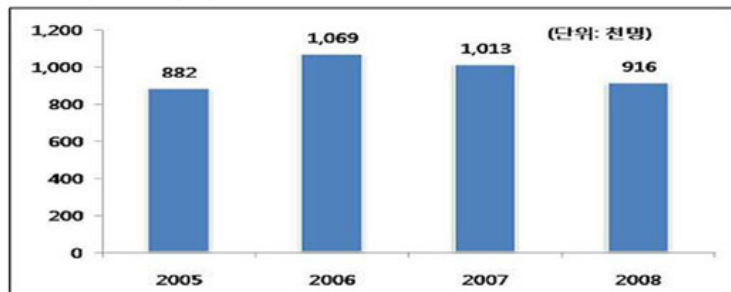


자료: 관광자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문화관광연구원

〈강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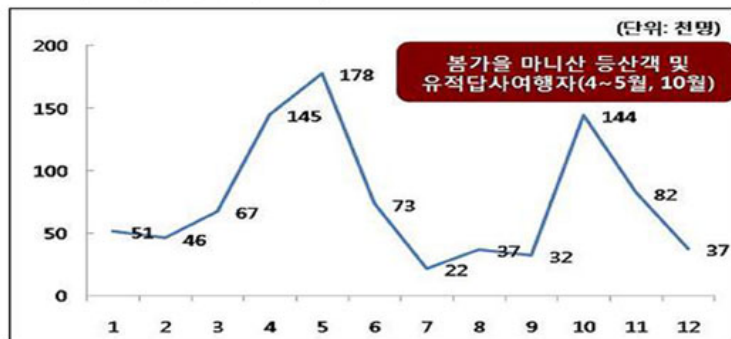
- 수도권에 위치한 강화군의 입지적 장점으로 연 방문객은 약 92만명 규모이며, 연도별 방문객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월별 방문객수의 경우, 봄철 및 가을철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역사문화 유적 답사자 및 마니산 등산객이 이 시기에 많이 방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강화군 연도별 관광객 추이



자료: 관광자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문화관광연구원

〈그림 4〉 강화군 월별 관광객 추이(2008년)



자료: 관광자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문화관광연구원

■ 자원별 이용객 현황

- 웅진군과 강화군의 전적자원과 생태자원에 대한 이용객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주요 전적자원별 내·외국인 방문 현황

지역	자원 유형	관광지명	2007(명)			2008(명)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웅진	전적 자원	제1·2 연평해전 전적비	20,779	20,604	175	89,852	89,586	266
		백령도 OP	-	-	-	6,296	6,213	83
강화	전적 자원	강화도 평화전망대	-	-	-	1,989	1,982	7
	생태 자원	마니산	744,500	744,500	-	371,689	371,689	-

자료: 국방부, 관광자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문화관광연구원

<참고문헌>

한국관광공사(2009), 평화·생명지대(PLZ)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남북접경지역의 2008년 10개 시군에 대한 총 관광객 수는 19,491천 명으로, 강원지역이 49.20%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지역은 45.64%,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5.16%로 나타났다음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파주시(8,167천 명)이며, 다음으로 고성군(5,771천 명), 인제군(2,518천 명)의 순임. 강화군의 관광객 수는 915천 명 수준으로 철원군(909천 명)과 비슷하였으며, 도서지역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옹진군은 89천